

“떠어쓰기 없는 삶에 쉼표를 찍어 봅시다”

- 대전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 김재섭 대전지국 통신원

기본소득이 다가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었다. 그러던 것이 2016년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대회 개막 자리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축사를 하더니, 『한겨레21』이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이제는 야당 대선 후보들 모두 기본소득 비슷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곳 대전시에서도 권선택 시장은 내용은 그냥 취업 지원 정책이지만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기본소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아직 거리의 시민들은 생소하게 반응하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는 꽤나 익숙해 질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국제대회에서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한겨레21』의 기본소득 실험에 자극을 받아서 대전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시민들에게 후원금을 모아서 추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6개월간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초안이 논의되었다. 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을까? 대전의 실험을 소개하고 현장의 모습들을 전달하고자 한다.

대전에서 만난 최초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지역에서 청년 독립잡지 『BOSHU』를 제작해 무가로 배포하던 활동가들이다. (‘보슈’는 ‘보시오’의 충청도 사투리다.) 청년들은 기본소득을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 취지와 상상력을 지지하고 있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지지가 수렴될 공간이나 운동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가 2015년 한 해 동안 지역 내에서 기본소득 강연을 여러 번 개최했었고, 올해에는 기본소득 국제대회도 있었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있지만, 기본소득 지지자들을 운동으로 모아 낼 기획과 내용은 부재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 『한겨레21』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슷한 실험을 지역 단위에서 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주최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소득 프로젝트 팀을 모집했다. 사회학과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초기 팀은 지역 내에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자들을 만나 가면서 프로젝트의 초기 모습을 잡아 갔다. 대전 성공회 주교좌교회 오동균 신부님은



프로젝트의 로고

지난 국제대회에서 “기본소득과 종교” 세션에서 발표한 것을 인연으로 하여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와 강연자로도 활약해 주셨다.

프로젝트에 대한 틀이 잡혀갈 때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회에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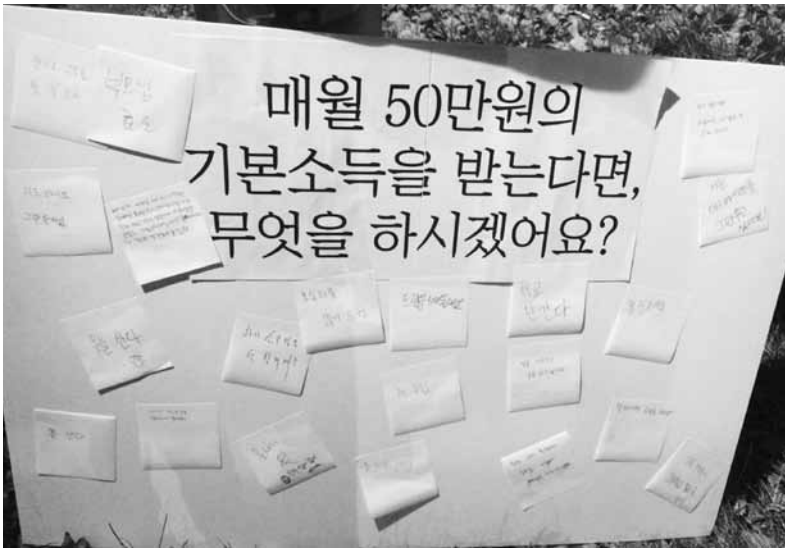
조언과 지지를 구했다. 대전 프로젝

트 팀의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실험’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실험으로서의 표본의 수나 기간이 짧은 것이 한계였다. 또한 팀 내에서 이 프로젝트의 성격에 대해 의견이 다양했다. 이사회로부터 냉혹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내용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기본소득운동을 시작하려는 새로운 주체로서는 아쉬움이 많았다.

애초 구상은 월 100만원, 6개월, 3명 지급이었으나 지금은 월 50만원, 6개월, 3~6명 지급으로 변경된 상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회 참여 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팀원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고, 매달 기본소득 강연을 열기로 했고, 홍보물과 캠페인 계획을 짜고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 팀의 이름도 확정되었다. “대전 기본소득 실험 띄어쓰기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확실히 커졌



음을 체감했다. 페이스북 홍보와 대학 내 포스터만으로도 강연에 새로운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강연이 끝나고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팀에 합류하는 사람도 있었다. 11월에 충남대 윤자영 교수가 강연한 ‘여성과 기본소득’에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여성이 기본소득과 돌봄노동에 대한 관계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나누기도 했다.

거리 캠페인 반응도 사뭇 흥미롭다. 기존에 기본소득을 주제로 거리 캠페인을 했을 때 어려웠던 점은 너무 설명할 것이 많다는 것이었다. 기본소득의 개념과 의미, 철학적 경제적 개념들,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 캠페인에서는 달랐다. “매달 당신에게 50만원씩 지급된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우리는 기

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기본소득의 주인공이 되 보세요.” 이런 말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멈춰 세우는 힘이 있다. “어차피 다 거짓말이야”, “안 쥐 안 쥐”라고 하면서 냉소를 보내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한참을 부스 앞에서 지켜보기도 했다. 청소년들의 관심도도 높은 편이다. 이들이 모두 기본소득을 지지하거나 알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캠페인의 목적이 더 광범위한 대중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와 지지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 이번 프로젝트의 실효성은 높아 보인다.

지역의 잡지, 신문, 라디오에서도 관심이 많다.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이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언론의 반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원자의 수는 약 60명이다. 2월 초 추첨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조건은 간단하다. 지급되는 기간 동안 프로젝트 팀의 인터뷰에 응할 것, 그것이 전부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지만 선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불쌍함을 강조할 필요도, 미래를 지어 낼 필요도 없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전의 실험이 학문적 의미에서는 부족함이 있지만 기본소득 ‘운동’의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기본소득운동의 주체를 형성하고 지지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운동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이다.

이번 기본소득 실험이 잘 마무리되면 다른 지역, 나아가 전국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조직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전에서

의 첫 지급이 끝나는 6월이나 7월쯤이면 지역별로 기본소득 조례 제정 운동을 펼치는 것도 가능하다. 2018년 지방선거에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여럿 출마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 본다.

프로젝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페이스북 “대전 기본소득 실험, 띄어쓰기 프로젝트”를 참조하시고,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 “대전 기본소득 실험 띄어쓰기 프로젝트”를 친구로 추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후원은 농협 301-0201-8550-11(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로 받습니다. **☎**